

2023년 12월 31일(주일) 제1663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고 이종운 목사님 1주기 추모글 모집

순례자는 고 이종운 목사님 1주기를 맞아 성도 여러분의 추모글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전 성도이며 시, 편지글, 수필 등 형식은 자유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전 성도

기간: 2024년 1월 3일(수)

분량: A4 1/2, 글자 크기 10pt

접수: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주일) 찬양예배 시 : 항존직 은퇴식 · 성경통독자 시상 · 장한 어머니상 시상  
찬양예배 후 : 특별제직회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 / 오후 11시 30분 송구영신예배  
1월 7일(주일) : I·II·III부 예배 시 신년감사예배 · 성찬식  
찬양예배 후 예·결산 승인 공동의회

2023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각 교회학교 졸업 감사예배가 교회학교별로 있습니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의 은퇴식과 장한 어머니 시상식, 성경통독 시상식이 열립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립니다.

또한 2024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오늘 오후 10시 30분 송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과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11시 30분부터 송구영신예배가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되며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첫 주일인 1월 7일(주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결산 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 ■ 항존직 은퇴자

- 장로 : 이계홍 오치열 차도훈 안인호
- 안수집사: 김동진1 한인진 김규태 임낙식 정인주 조철기 임범창 이준호3 한종표 윤영구 유근중
- 시무권사: 노경신 김양숙 박천희 임송자 백영자 성순자 이상섭 이형희 이봉선 주의현 이옥수 남영주 배은희 서영희

### ■ 장한 어머니상(자녀 개군)

고민정 조은혜 박지혜 김의정 김혜숙 안재희 이진희 남재은 이수정 이선애 손영희 송명원 차현정 김은정 노애리

### ■ 성경통독자

- 1독 (1교구) 김은숙 임미경 박정희 임춘자 조순엽 김정순 최재련 이선희 채형숙 강은경 정금희 채교천 황금선 석춘희 옥희숙 임송자 이규희 (2교구) 최형열 김찬진 오충례 김영현 전광환 권소희 추석우 박정애 이봉규 노경신 (3교구) 박미영 오만옥 최옥경 김순진 전운주 주화인 (5교구) 송금자 김경희 박광훈 조정옥 홍석현 송민정 이경순 (6교구) 김명심 오가연 노문환 장정화 신동기 김예환 서상근 양미숙 이안순

이영희 장윤기 유외숙 (7교구) 모양순 김승록 전미경 김재령 윤태욱 박수옥 김숙자 김혜식 김혜연 박은영 김신영 이관모 김홍두 (8교구) 한춘홍 채덕희 이봉선 박길자 백승갑 남영주 제오복 김미성 이한나 (9교구) 김미자 김진숙 허경화 장애순

· 2독 (2교구) 이은희 구성현 (3교구) 박혜정 (4교구) 유명석 김영희 정미연 (5교구) 최죽희 박동희 (6교구) 오형철 이정연 정희순 (7교구) 박순복 홍혜련 황선희 홍혜란 최지훈 (9교구) 김경숙 전용순 이남성

· 3독 (4교구) 박선자 박복순 (6교구) 김복희 (9교구) 이강전

· 4독 (9교구) 김찬웅 홍순복

· 5독 (2교구) 이순례 양옥자

· 21독 (5교구) 김석봉

· 필사 (2교구) 한은미 (4교구) 윤현주(3회) 최종희

## 1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

1월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가 1월 첫 번째 토요일인 1월 6일(토) 오전 6시에 열립니다.

2024년 첫 서울가족 새벽기도회에 나오셔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가족이 위로받고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다시 희망을 향하여 가야합니다

(고후 4:16-18)



손달익 위임목사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의 중단될 수 없는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희망까지 제시하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희망의 도전 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 1. 바른 가치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환난보다 장차 받을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자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는 민족주의자로서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복음 전도자의 가치관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이 육신의 행복보다 중요하고 이 세상의 나라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자로서의 가치를 버리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선택합니다. 한 개인이 자기 삶 전체를 바칠만한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제가 후배들이나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종교 기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래 교회생활을 하다보면 교회 일에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숙함이 기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능숙함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충성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됩니다.

가치관이나 정신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향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부산을 가려하는 사람은 우선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야합니다. 기차든, 비행기든 버스든 일단 부산행을 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만 목적지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환난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보이는 이 세상의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모진 시련 앞에 육신이 무너져 내려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 먼저 복음과 신앙에 기초한 올바른 가치관과 정신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 2. 능력의 원천은

바울은 어떤 방해와 저항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도전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8-9절) 낙심하지도 않고, 버려진 자가 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렇게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7절). 보배를 질그릇에 품으므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머

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무가치하고 불품없고 잘 상하고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실 때입니다. 그때부터 질그릇 같은 나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7절).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 능력에만 의지하려 합니다. 자기 지식, 경험, 돈, 세상의 권위, 인간의 기술과 과학 등이 주는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들도 이 세속적인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그래도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다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소외감 느끼고 열등감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회의를 느끼지 마시지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입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 3. 거룩한 희생의 신앙

진정으로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10절), 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11절)이라는 표현은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실재적으로 자기 육신을 죽음에 넘겨주듯 생사를 초월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잔을 기꺼이 마시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땅한 권리의 포기로 표현했습니다.

간디는 7가지 사회악을 말한 바 있습니다. 1. 원칙 없는 정치(Politics without Principle) 2. 노동 없는 부(Wealth without Work) 3. 양심 없는 향락(Pleasure without Conscience) 4. 인격 없는 지식(Knowledge without Character) 5. 도덕 없는 상업(Commerce without Morality) 6. 인간성 없는 과학(Science without Humanity) 7. 희생 없는 종교(Religion without Sacrifice)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절정이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희생 없는 권리주장입니다. 희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참 신앙의 즐거움을 모르게 됩니다. 본문은 그 거룩한 즐거움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나를 죽음에 넘기듯 희생했더니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내 삶에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11절) 둘째는 나는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니 이런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 얻는 구원의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희생하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희망의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신앙의 근본정신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본받아 희생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로 끝까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계홍 장로

마른 풀 같은 제가 장로가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진 저에게 성도님들의 손으로 장로라는 명패를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날마다 배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저를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머리를 숙이는 장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무장로 직을 은퇴하면서 저는 자리에 부끄러운 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그동안 섬기는 종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크고자 하는 자가 되려고 자리에 집착하며 다툼을 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 곁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 죄를 용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한 걸음이라도 가보기는 했는지 돌아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후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다 돌아보지

못한 것까지 깊이 성찰하며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부족했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선배 장로님들과 동료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열 번이라도 도와주셨던 따뜻한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자리가 있기까지 성도님들의 기도는 저에게 큰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우리 모두가 남은 그루터기



오지열 장로

돌아보면 고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아 총현교회부터 서울교회 설립에 이어 32년을 지켜온 교회이기에 많은 추억이 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못할 기억은 독수리 날개치며 성장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교회 분란으로 엄청난 흥역을 치르게 된 것이지요.

이제 겨우 극복한 지 3년여가 됩니다. 장로로서 10년을, 이 혹독한 기간

의 절반을 동고동락하며 보냈으니 교회도 성도들도 귀하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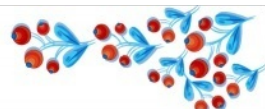
우리 모두가 남은 그루터기의 귀중한 분들이니 서로서 포용하고 용납하여 모두가 하나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디 만세 반석에 굳건히 세울 훌륭한 분이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모든 손길 위에 감사드리며 혹여 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사히 은퇴의 자리까지 오게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에게 만사가 형통하신 복을 누리시고 항상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차도훈 장로

오늘 시무장로 직분을 은퇴하며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계량할 수조차 없는 벅찬 심정으로 은퇴의 소감을 씁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님의 은혜로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바른 신학을 배우게 하시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쌓으며, 섬기는 성도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또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의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아 제게 맡겨진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기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정년으로 은퇴를 하기까지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었으며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미숙한 저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도 많았고, 그 일로 인하여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여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간직한 채 이제 교회에서 정한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를 하게 되었으니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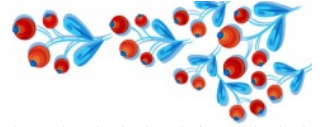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아파하였고 저 역시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힘 없는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보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여러 부분에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들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마음으로 은퇴를 하게 되었기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로 시무장로서의 마지막 섬김의 기간 동안을 전심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여 아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의 미비함을 헤량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비록 몸은 은퇴하지만 저의 마음은 언제나 성도님들과 함께 하며, 교회의 온전한 회복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사역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퇴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김동진 안수집사

유난히 나이부터 묻고, 떠부터 따지는 우리 사회에서 돌아보면, 직장에, 그리고 직업에 제한 연령과 정년이 있고 은퇴가 있어 그 과정을 거쳐왔지만, 지금도 업무로 회의를 하다보면 참석자들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25년씩 나기도 하여 문득 세월의 무상함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신앙의 길에서의 은퇴란 세상의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직업과 생업에 따라 바쁘게 살아가며 짧은시간 쪼개어 봉사하던 시간에서 좀 더 폭넓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고 새로운 소명으로 무겁게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과 그 소명 가운데 그동안의 삶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로 어려운 이에게 더욱 관심을, 낙심하는 이에게 더욱 격려를, 좌절하는 이에게 더욱 용기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힘쓰고, 미움이 있는 곳엔 용서를 일러주고, 부족한 곳엔 함께 채워가며, 잘못이 있는 곳엔 포용과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서울교회와 함께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으로 경건한 예배의 시간들,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교제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장을 마련해 준 서울교회는 은혜의 처소이자 감사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 은

퇴 없는 영혼의 안식처 서울교회에서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소명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를 더욱 소생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남기고 싶은 것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보람이 되게하고,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은 더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와 교역자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관심과 과분한 사랑에 행복하였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 필리핀을 아버지의 품으로!

### 비전트립을 위한 기도회

#### 오늘 찬양예배 후 웨민홀

오늘 찬양예배 후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을 위한 온 교인 기도회"가 웨민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비전트립은 필리핀 도시빈민 어린이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 및 환경개선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회 후에는 특별 간식과 8층 만나홀에서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여름 의류 모집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팀에서 필리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여름 의류를 모집합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의류여야 하며 너무 낡은 옷은 수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비전트립 후원을 위한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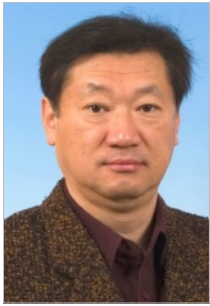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후원금 모금을 위한 커피 판매 모금행사가 8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도시빈민 어린이들에게 후원할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 위한 기도]

1. 2024 청년부 필리핀 비전트립의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쁨부움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 모든 팀원들이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권능과 은사와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확산을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2. 비전트립팀의 모든 모임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동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무런 질병이나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 여호와 샬롬을 이루게 하소서.
3.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된 선교팀이 되게 하시되 분열과 시기의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탄의 어떤 방해와 시험도 모두 무력화시키며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소서.
4. 팀원들의 가정과 일터에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선교를 지원하고 함께 중보기도로 동역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5. 선교 여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기도후원이 충분히 채워지게 하시어 필리핀 볼라칸 바티아 지역에 예비하신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돕게 하시고 그들의 열린 마음에 십자가 복음이 잘 심겨지며 믿음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게 하소서.
6. 각각 분담하여 맡은 선교팀의 모든 업무들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선교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7. 비전트립팀을 지원하고 파송하는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기쁨과 함께 동역하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 주님이 주신 직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홍창훈 안수집사  
(2023 스테반회 회장)

2023년도 부족한 종이 스테반회 회장에 임명되어 봉사한지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열정을 가지고 스테반회의 단합과 맡은바 책무의 역할

을 다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스테반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계획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늘 방법을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분란과 회복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안수집사님들이 자의반 타의반 교회를 떠나고 스테반회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임명 받으신 65명의 안수집사님들이 스테반회의 신입회원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스테반회가 다시 활력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교회 대청소에 모든 안수집사님들의 참여로 교회의 묵은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또 각기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교회가 주님의 은혜가운데 부흥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테반회 최초로 목사님과 기획장로님을 모시고 현재 서울교회의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고치고 개혁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건의하고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안수집사님들께서는 교회의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역자 및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간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서울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 서울교회의 분란의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도 교회 내부에서는 은연중에 탐욕과 질투, 자만과 허세를 부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스테반회 회원들께서는 상처받은 회원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사랑과 배려를 통

해 그 마음과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반회에서는 회원들의 건강과 신앙 및 교양지식을 함양하는 일환으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는 특강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해 스테반회의 신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회장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부터 스테반회가 더욱 발전하고 단합이 잘 되는 스테반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많은 협조와 기도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의 스테반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서울교회를 만들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안수집사의 직분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고 참여하여 무늬만 안수집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으로 스테반회가 발전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장호림 권사  
(2023 권사회 회장)

2023년도 연말은 어느 해와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지난 1년을 회고해 봅니다. 저는 이제 많은 고심을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성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좁고 험한 길과 넓고 평탄한 길의 두 갈래 길 중 지난 1년 저는 어느 길을 지나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높은 곳에 계신 절대자이며 정확무오한 주님만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지난 1년간의 저의 수고가 모두 헛된 수고가 아니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3년 1월 18일(수), 이종윤 원로 목사님의 소천으로 인해 권사 회장을 맡자마자 부족한 제가 권사회를 이끌며 권사 회원들과 함께 조용하면서도 숙연하게 속해있는 부서별로 서로 시간 맞추어 직장 다니시는 권사들까지도 섬김의 손길로 장례식장에서 함께

봉사했던 시간은 제 평생 감사함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권사 회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분쟁도 함께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해 주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선배 권사님과 동료 후배 권사님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지난 1년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신 권사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저는 복음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서울교회 권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 1. 이종윤 원로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의 영적 아버지, 이종윤 원로목사님께서 2023년 1월 18일(수) 향년 8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2. 3부 예배 청·장년예배로 변경

2023년에 젊은 세대를 위해 3부 예배를 청·장년예배로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 3.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2월 6일(월)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2월 12일과 19일 2주에 총 25,961,000원을 드렸으며,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이 귀중한 헌금을 성도들을 대표하여 손달익 위임목사님이 2월 28일(화)에 총회를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10월 멕시코 게레로 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현지 교회 8곳에 긴급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교회는 올해 바자 수익금 중 500만 원을, 그리고 개인 성도 및 기관에서 960만 원을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 4. 70인전도대 다시 시작

2023년은 교회의 혼란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7년여 중단되었던 70인전도대를 다시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수요일예배 후에는 전도회와 권사회, 토요일 오후에는 선교회와 스테반회를 중심으로, 주일에는 자원하시는 성도들이 노방전도에 열심을 내었던 한 해였습니다.



## 5. 봄맞이 대 청소

교회의 혼란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하지 못했던 교회 대청소를 소소한 재미가 있는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6. 새가족환영회 시작

교회가 회복되면서 새로 등록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교구, 다락방, 전도회, 선교회의 연계를 위한 새가족환영회를 3월과 6월, 12월 3회에 걸쳐 열렸습니다.



## 7. 2023 한마음축제·교회학교연합수련회

2023 한마음축제가 지난 7월 29일(토)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속에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의 연합수련회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 8. 16대 장로 선출

지난 5월 21일(주) 제16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백도환 안수집사가 선출되어 11월 26일(주일)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9. 열린프로그램의 확대

교회는 문화 나눔, 말씀에 기반한 찬양문화의 형성과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 문화를 고취하고자 열린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주최 제4회 선교찬양잔치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주최 제4회 선교찬양잔치가 7월 15일(토) 서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혼란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랜 기간 참석하지 못했었으나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저력을 발휘하며 큰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 지난주 2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 처음 출석한 7교구 김진수3 성도·최영은 집사의 아들 김예준에 대한 축복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성탄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25일(월)에는 성탄 축하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년



- 9교구  
 김원준 성도·신지선 성도 가정  
 김도아 아기  
 (2교구 이순례 권사 증손녀  
 9교구 김정훈 안수집사·김희정 권사 손녀)

입대

- 3교구 오원준 성도(오만옥 안수집사·박미영3 권사 차남) 1월 8일 21사단(강원도 양구)

식사·술 제공

- 고 이강진 장로 자녀 일동:이신재 집사·이신영 집사·이신혜 집사 김동준 집사  
 (범사에 감사드리며)

## 2023 송년음악회

황인형 - 독창 ..... 예수 이름으로  
 정수연 - 독창 ..... 은혜  
 구민영 - 독창 ..... 하나님 사랑  
 신모란 - 독창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장상국 김영희 김규원 최읍 - 중창 .....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안선광 - 색소폰 독주 .....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강석범 - 독창 ..... Mit wird und Hoheit angetan  
 전지희 - 오르간 ..... (고귀한 위엄 지니고)  
 장윤식 - 기타 연주 ..... 오 거룩한 밤  
 이경옥 - 피아노  
 글로리아기타찬양단 - 기타 연주 ..... 눈은 사뭇이 내리고 - Winter Rock  
 유충기 - 독창 ..... 내가 주님 앞에 기도 합니다  
 김복희 - 피아노

### 2024 전교인 성경읽기 표

2024년부터 기존의 성경 순서대로 하는 성경일독 진도표에 더하여,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서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맥체인 방식 성경일독기표가 게시됩니다. 기존의 성경일독 진도는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날자	요일	창	마	스	행
1	월	창1	마1	스1	행1
2	화	창2	마2	스2	행2
3	수	창3	마3	스3	행3
4	목	창4	마4	스4	행4
5	금	창5	마5	스5	행5
6	토	창6	마6	스6	행6
7	주일	창7	마7	스7	행7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해가 시작되듯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례의 여정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2. 2024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이웃과 서로를 섬기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복음 위에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전쟁과 분열, 죽음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 ■ 섬기는 분들

####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